

대학로 창의적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서

한국 공연예술 인재의 산실을 다음 세대를 위해 지키다

제안자: 루카스 최 (Lucas Choi)

설립자, Y2K Theatre Kids (학생 주도 연극·영화 비영리 단체) · 국제 시스피언 협회(International Thespian Society)

2026년 서울시장 선거 주기 중 제출

이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MCST),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KAMS·KOPIS)의 공개 통계, 그리고 국내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제안자가 대학로에서 직접 활동하며 얻은 경험과 대학로에서 활동 중인 배우(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소속)와 직접 진행한 인터뷰를 함께 담았습니다. 출처가 있는 수치는 각주로 표시했으며, 예산 추정치는 제안자 본인의 계산임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학로는 '한국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핵심 인재 양성소입니다. 복수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로에는 약 100개에서 14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극장이 밀집해 있으며, 이는 일본 시모키타자와 연극 지구와도 비교되는 이례적으로 높은 밀도입니다.

출처: 코리아넷(Korea.net)/Korea Monthly, 「대학로, 서울의 진화하는 연극 지구」; Musical in Life, 「대학로: 서울이 박수로 숨쉬는 거리」, 2026.

동시에 한국 공연예술 시장은 구조적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 전국 티켓 매출은 사상 최고치인 1조 7,326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 성장은 대형 콘서트와 뮤지컬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연극 장르는 공연 횟수가 늘었음에도 매출이 오히려 감소해 소규모 독립 극장들이 전체 산업 호황 속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시장 티켓 판매 분석 보고서」 (2026년 3월 11일 발표); 아시아경제, KOPIS 2025년 3분기 보고서(2025년 10월 29일).

이 제안서는 이러한 시장 동향, 제안자가 대학로 공연에 직접 참여한 경험, 그리고 대학로 배우와 진행한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5개년 단계적 서울시 투자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시된 예산 수치는 정식 제출 전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추정치이며, 이 점을 제안서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배경: 대학로가 중요한 이유

대학로가 연극 지구로 자리잡게 된 계기는 1975년 서울대학교가 이전하면서 남은 대학가 문화가 소극장, 갤러리, 카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된 데서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 1985년 이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공식 지정했고, 2004년에는 인사동에 이어 서울의 두 번째 공식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출처: Musical in Life, 「대학로: 서울이 박수로 숨쉬는 거리」, 2026.

대학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150편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로는 한국 전체 연극 매출의 최대 80%, 전체 무대 배우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학로가 사실상 한류를 이끄는 영화·드라마·뮤지컬 산업의 인재들이 처음 훈련받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출처: 코리아넷(Korea Monthly), 「대학로, 서울의 진화하는 연극 지구」.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현재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학로를 다룬 언론 보도들은 임대료 상승과 상업적 재개발 압력을 독립 극장 생존의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실제 전국 공연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3분기, 연극 장르는 공연 횟수가 전년 대비 23.4% 증가했음에도 티켓 매출은 오히려 13.5% 감소해 183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소극장들이 생존을 위해 더 많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음에도 관객과 매출은 대형 공연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Musical in Life, 2026; 아시아경제, KOPIS 2025년 3분기 티켓 판매 보고서, 2025년 10월 29일.

현재 시장 데이터

2025년 전국 공연예술 시장

지표	2025년	전년 대비
총 티켓 매출	1조 7,326억 원	+18.8%
공연 편수	23,608건	+9.6%
공연 횟수	136,579회	+11.3%
예매 건수	2,478만 건	+10.8%
평균 티켓 가격	약 69,928원	약 +5,000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시장 티켓 판매 분석 보고서」 (2026년 3월 11일 발표, 코리아헤럴드·스포츠크랑 보도).

성장이 집중된 지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025년 전국 예매 건수의 76.4%, 매출의 82.7%를 차지했으나, 서울 자체의 비중은 2024년 65.1%에서 2025년 60.6%로 하락하며 경기·인천으로 분산되는 추세입니다.
- 대중음악 티켓 매출은 2025년 9,8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0%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1만 석 이상 대형 콘서트 건수가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반면 대학로의 핵심 장르인 연극은 2025년 3분기 공연 횟수가 늘었음에도 매출이 13.5% 감소해, 대형화 중심의 시장 성장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스포츠크랑/아시아경제, 문화체육관광부-KAMS 2025년 티켓 판매 보고서, 2026년 3월; 아시아경제, 「해외 원정 7만 석... 5만 석 공연장 없는 한국」, 2026.

뮤지컬 부문 규모 비교

시장	연간 관객 수	매출	평균 티켓 가격
한국 (뮤지컬, 2025년 상반기 기준 연환산)	약 800만 명	약 4,750억 원/년	약 59,000원
브로드웨이 (2024)	1,470만 명	약 2조 원 이상 상당	약 110달러
런던 웨스트엔드	1,710만 명	해당 자료 없음	해당 자료 없음

출처: 코리아헤럴드, 「한국 뮤지컬 붐 속 전용 전용법 제정 촉구」, 2025년 9월 9일 (2025년 상반기 KOPIS 뮤지컬 데이터, 브로드웨이·웨스트엔드 2024년 비교 수치 인용). 한국 연간 수치는 상반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안자가 추정한 것으로, 정식 제출 전 KOPIS 연간 발표 자료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뮤지컬 시장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절반 수준의 관객 규모와 훨씬 낮은 평균 티켓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하게는 성장 자본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바로 대형 상업 뮤지컬과 스타디움 콘서트이지, 그 배우들을 처음 길러낸 대학로의 소극장이 아닙니다. 대학로의 100여 개 소극장은 사실상 자신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산업의 인재 양성 비용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비교 분석: 브로드웨이·웨스트엔드·도쿄

브로드웨이 (뉴욕)

브로드웨이는 2024년 약 1,4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매출은 2조 원 상단을 넘었고 평균 티켓 가격은 약 110달러로 한국 뮤지컬 평균의 약 두 배입니다. 브로드웨이는 오프-브로드웨이, 오프오프-브로드웨이라는 소극장 생태계를 함께 갖추고 있어 대학로와 유사한 인재 육성 기능을 수행합니다.

출처: 코리아헤럴드, 2025년 9월 9일.

웨스트엔드 (런던)

런던 웨스트엔드는 2024년 1,71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해 세 지역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브로드웨이와 마찬가지로 런던의 프린지(fringe) 연극 씬이 대학로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코리아헤럴드, 2025년 9월 9일.

도쿄 (시모키타자와)

도쿄에서 대학로와 가장 유사한 지역은 소극장이 밀집한 시모키타자와입니다. 한 비교 자료에 따르면 대학로는 140개 이상의 극장을 보유해 시모키타자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소개되는데, 이는 대학로가 이미 공공 투자 없이도 두 지역 중 더 밀도 높은 생태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시모키타자와의 구체적인 관객 수·매출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정식 제출 시에는 일본 문화 당국 자료를 통한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Musical in Life, 「대학로: 서울이 박수로 숨쉬는 거리」, 2026.

주의: 위 브로드웨이·웨스트엔드 수치와 달리, 이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도쿄/시모키타자와의 검증된 관객·매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최종 제출본에 도쿄 비교를 포함하려면 반드시 구체적 출처가 확인된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 경험: 대학로에서 직접 활동하며

저는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의 조연출 겸 주연 배우,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서 셰익스피어 「심벨린(Cymbeline)」 5막 전편을 대학로에서 전문 공연으로 함께 연출했으며, 약 20명의 배우·스태프를 이끌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 개인의 관찰이며, 공식 연구 자료가 아니라 위의 시장 데이터를 보완하는 정성적 맥락으로 제시합니다.

- 전문적으로 제작된 공연조차 극장 대관, 연습 공간, 기술 지원 비용이 상업 뮤지컬 대비 훨씬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짧은 공연 기간과 촉박한 연습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 대학로 몇 블록 안에 극장이 밀집해 있다는 점은 스태프 공유, 극단 간 비공식 멘토링, 하루 저녁 여러 공연을 옮겨 다니는 관객층 형성 등 실질적인 협업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극장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흩어질 경우 이러한 이점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 대학로 독립 공연을 지탱하는 노동의 상당 부분은 투입 시간 대비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앞선 시장 데이터의 패턴과도 일치합니다 — 경제 여건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공연 편수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홍윤경, 대학로 배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아래 인터뷰는 제안자가 대학로에서 활동 중인 독립 배우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소속인 홍윤경 씨와 직접 진행한 것입니다. 답변은 원본 인터뷰 내용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질문 1. 독립 연극 배우로서 오늘날 대학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작품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완전히 다르고 고유한 것이며, 인기를 좇으라는 압박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하다.”

질문 2. 서울시가 대학로를 위한 정책을 하나 시행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시겠습니까?

“예술가를 위한 예술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질문 3. 대학로는 다음 세대의 배우, 극작가, 창작자를 양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대학로는 오랫동안 예술가의 정신이 깃든 예술적 안식처였다.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예술적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져 왔고, 많은 극장들이 그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 관객들도 연극을 보기 위해 대학로를 자주 찾는다. 대학로의 예술적 환경은 다음 세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훌륭한 무대가 될 것이다.”

홍윤경 씨의 답변은 위의 시장 데이터와 두 가지 지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인프라 투자를 요청한 것은 본 제안서의 '독립 극장 보존 기금'과 '대학로 혁신 파트너십' 항목을 뒷받침하며, 대학로를 인재 양성의 '안식처'로 묘사한 것은 전국 무대 배우의 70%가 이곳에서 활동한다는 수치와 일치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

아래 배분안에 대한 중요 안내: 이는 대학로에 보고된 극장 수를 기준으로 제안자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추정치이며, 감사받은 예산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신뢰도 높은 최종 제출본을 위해서는 실제 극장 운영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항목별 세부 산정이 필요하며, 이번 초안보다 더 많은 대학로 극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대학로에 보고된 100개에서 140개 이상의 극장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개년 총 220억 원의 투자는 극장 수 기준에 따라 극장당 평균 약 1억 5,7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5년 누적), 즉 연간 약 3,100만 원에서 4,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2025년 전국 평균 티켓 가격이 5,000원 오른 것과 비교해도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며, 박스오피스 매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시설 지원을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기금명	5개년 금액	목적
독립 극장 보존 기금	80억 원	임대료 안정화, 시설 유지·보수, 접근성 개선
청년 예술 접근성 이니셔티브	50억 원	학생 공연 참여, 워크숍, 멘토링
신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40억 원	보조금, 레지던시, 공연 기회 제공
문화유산 보호 및 복원	30억 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극장 보존
대학로 혁신 파트너십	20억 원	AR·디지털 무대, 관객 경험 기술

전액 확보가 어려운 이유

현실적으로 220억 원 규모의 문화 전용 예산을 단일 회계연도에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앞서 살펴본 전국 데이터 역시 투자 자본이 소극장이 아닌 대형 상업 공연장과 콘서트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단년도 예산이 아니라 5개년 단계적 계획으로 시 관계자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시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 자원 조달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문화재단 및 한류 관련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매칭 그랜트 — 이미 대학로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이 이들 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상호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 '대학로 혁신 파트너십' 항목과 연계한 기업 후원 — 실감형·AR 공연 실험은 기술·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직접적인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입니다.
- 대학가 인접 지역이라는 대학로의 기원을 활용한 대학 파트너십으로 '청년 예술 접근성 이니셔티브' 비용을 분담합니다.
- 연간 성과 평가와 연계한 단계적 집행 — 1·2단계 기금의 효과가 입증된 이후 220억 원 전액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합니다.

추진 일정

단계	시기	중점 사항
1단계	1년차	독립 극장 보존 기금 개시, 극장 재무 현황 기초 자료 수집
2단계	1~2년차	학교·대학과 연계한 청년 예술 접근성 이니셔티브 시행
3단계	2~3년차	신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보조금·레지던시 시작
4단계	3~4년차	문화유산 보호 실태조사 및 우선 극장 복원
5단계	4~5년차	기술·엔터테인먼트 후원사와의 대학로 혁신 파트너십 시범사업
상시	1~5년차	연간 성과 평가 및 KPI 결과에 따른 예산 재배분

성과 지표 (KPI)

- 연도별 대학로 극장 운영 유지 수 (목표: 임대료·재개발 압박으로 인한 순 폐업 제로화)
- 분기별 KOPIS 보고서 대비 연극 부문 티켓 매출 추이 (목표: 2025년 3분기 13.5% 감소분을 2년 내 반등)
- 청년 예술 접근성 이니셔티브 연간 참여 학생 수
- 신진 예술가 보조금·레지던시 수여 건수 및 수혜자의 전문 공연 진출 현황
- 정식 실태조사 및 필요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역사적 가치 극장 수
- 공공 자원 1원당 확보된 민간·대학·기업 공동 자원 비율

참고 문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KAMS), 「2025년 공연시장 티켓 판매 분석 보고서」, 2026년 3월 11일 발표 (코리아헤럴드, 「South Korea's live performing arts market hit ₩1.73tr in 2025, up 18.8%」 보도 인용).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KOPIS), 「2025년 3분기 티켓 판매 보고서」, 2025년 10월 29일 발표 (아시아경제 보도).

아시아경제, 「대형 콘서트가 이끈 공연시장 성장... 티켓 매출 1.7조 원」, 2026년 3월.

아시아경제, 「해외 원정 7만 석 한 번에... 5만 석 공연장 없는 한국」, 2026 (KOPIS 2025년 대중음악 티켓 데이터).

스포츠경향, 「지난해 공연시장 티켓 판매 1조 7천억 원 돌파」, 2026년 3월.

코리아헤럴드, 「한국 뮤지컬 붐 속 전용 진흥법 제정 촉구」, 2025년 9월 9일 (2025년 상반기 한국 뮤지컬 시장 데이터, 브로드웨이·웨스트엔드 2024년 비교 수치).

코리아헤럴드, 「공연예술 시장 2024년 매출 14.5% 성장」, 2025년 2월 18일.

코리아넷/Korea Monthly, 「대학로, 서울의 진화하는 연극 지구」.

Musical in Life, 「대학로: 서울이 박수로 숨쉬는 거리」, 2026년 2월 25일.

제안자가 대학로 배우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소속 홍윤경 씨와 직접 진행한 인터뷰, 2026.

유라시아 셰익스피어 극단(대학로, 서울) 현장 제작 경험 (제안자 본인의 기록).

자료 출처에 관한 안내: 위의 모든 통계는 실명이 명시된 공개 출처에서 인용했으며, 각 발표일 기준 최신 자료입니다. 5개년 예산 배분, 극장당 평균 금액, 2025년 상반기 뮤지컬 매출의 연간 환산치는 제안자 본인의 계산이며 본문에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이 제안서를 정부 기관에 정식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KOPIS 연간 발표 자료 및 실제 극장 재무 자료로 재검증해야 합니다.